고창 무장현 관아 출토 유물 고향 귀환

비격진천뢰 11점 포함 유물 739점 고창고인돌박물관으로 국가귀속 결정

고창 무장현 관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진천뢰' 등의 유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9일 고창군은 최근 문화재청이 지난 2018년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비격진천뢰 11점을 포함한 유물 739점을 고창고인돌박물관으로 국가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인돌박물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올 7월 용계리 청자요지 유물 이관에 이은 두 번째 고향 귀환이다.

비격진천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작열(灼熱) 시한폭탄으로, 유일하게 목표물에 날아가서 폭발하는 등 병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기다. 발굴 직후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처리와 각종 연구, 특별전 등이 진행돼 왔다.

2005년부터 진행된 무장읍성의 발굴과 정비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는 고창군의 꾸준한 문화재 보호 정책와 체계적인 발굴조사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임진왜란 이후 동학농민군의 무장읍성 입성 시에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읍성의 비격진천뢰는 앞으로 무장읍성의 새로운 역사문화의 스토리텔링 되는 고창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상 군수가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함께 비격진천뢰 등 유물을 살펴보고 있다.

고인돌박물관은 발굴된 유물들을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다"며 "앞으로 고창에서 발굴된 소중한 유물이 고창 품에서 자라고, 활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호원대 학생들, 밀양공연예술축제 · 거창연극제 8관왕

공연미디어학부, 'MEDEIA' · '심청' 작품으로 수상 쾌거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학생들이 '제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제16회 거창 전국대학연극제'에서 'MEDEIA', '심청' 작품으로 8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밀양공연예술축제 대학극전에는 호원대를 비롯해 총 6개의 대학이 본선에 올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 대학에서 제출한 공연영상을 바탕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호원대학교 작품인 'MEDEIA'가 최종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거창연극제에는 호원대학교 작품인 'MEDEIA', '심청'을 포함 총 10개의 작품이 올라, 이중 호원대 2개 작품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MEDEIA'는 에우리피데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각색해 새롭게 재탄생 된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김찬희(기획연출전공 16학번) 학생은 "인간의 소유욕으로부터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는 이 극을 통해 관객들이 삶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스스로 돌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청'은 고대 소설 '심청'을 모티프로 호원대학교 학생이 만든 순수 창작극이다.

작가이자 연출을 담당한 권영재(기획연출전공 17학번) 학생은 "효녀의 대명사로 불리던 심청이도 딸을 그리워하던 심봉사도 없는 이 극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MEDEIA'을 지도한 공연미디어학부의 김성태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와 누구보다 보람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전문예술인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뮤지컬 '광화문 연가' 10월 군산서 만난다

내달 1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화려한 캐스팅 · 명곡 감상

대형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과 7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소녀, 옛사랑,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을 작곡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과 함께 아련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담아낸 광화문 연가는 80~90년대를 살았던 이들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주크박스 뮤지컬로 펼쳐낸다.

뮤지컬 분야 독보적인 흥행성적을 서울공연에서 증명한 이 작품은 주인공 '중년 명우'역에 섬세하고 감성적인 보이스 강필석과 최정상 보컬리스트 윤도현이 더블캐스팅으로 출연하며, 인연의 신이라는 상상 속의 인물 '월하'역은 폭발적 가창력을 인정받은 차지연과 아이돌 메인보컬의 저력을 보여주는 김성규가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공연장 방역과 객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티켓예매는 9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및 커피브라운 통해 가능하다. 티켓금액은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예매 시 조기할인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10월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통해 지친 일상 속 관객들에게 작은 위로와 쉼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9월 문화공연 시리즈 '풍성'

김제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9월에는 보름달 같은 풍성한 문화공연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풍성한 문화공연 시리즈 1탄으로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추석맞이 효 콘서트'는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트로트 무대로 대한민국 트롯퀸 금잔디와 화제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미스트롯2〉에서 이름을 알린 나태주, 강혜연이 밴드 사운드에 맞춰 다양한 음악과 볼거리로 채워진다.

시리즈 2탄 김제 벽골제 단야 설화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단야-벽골제, 사랑이야기'가 9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제의 쌍용설화와 단야의 혼이 담긴 사랑이야기 등 김제만의 이야기를 창작으로 엮어낸 뮤지컬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인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에는 유튜브로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9월 풍성한 문화공연 마지막 3탄으로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2021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김제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 및 공연문화 증진을 위해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Drawing and POP'을 선보인다.

드로잉 퍼포먼스팀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무대 위에서 그림을 완성하며 극적인 반전 연출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며, 팝페라 가수 이희주는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재즈와 팝의 절묘한 조화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가창력과 음색에서 묻어나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무대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추석맞이 효 콘서트'는 13일 오전 8시부터, '단야-벽골제, 사랑이야기'와 'Drawing and POP'은 14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는 9일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서 김형미 시인을 초청해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공감 낭독'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김형미 시인 초청 '공감 낭독' 개최

전주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공감 낭독' 네 번째 시간 진행

전주시는 9일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서 김형미 시인을 초청해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공감 낭독'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김형미 시인은 이날 낭독도서로 선정된 '사랑할 게 딱 하나만 있어라'를 가지고 15명가량의 참석자들과 함께 '시를 쓰는 눈, 시를 듣는 귀'라는 주제로 낭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시인과 함께 책 속의 시를 낭독하면서 시인의 등단 과정과 시 쓰기 작업, 시인의 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공감 낭독 행사는 전주독서대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시는 전주독서대전 본 행사 기간인 다음달 8일 전주한벽문화관 경업당에서 다섯 번째 공감 낭독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공감 낭독은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고백'을 출간한 안도현 시인이 초청된 가운데 '나에게 전주, 시(詩)와 함께한 40년'을 주제로 열린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공감 낭독'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책의도시여행과 책읽는도시팀(063-230-1859)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음악창업특강 '청년과 지역문화예술' 개최

전주대학교 음악학과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청년과 지역문화예술'을 주제로 2021년 음악창업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창업특강은 전주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내 명품창업학과로 선정된 음악학과 학생들과 전북지역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 관련 취·창업 심층교육을 진행해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특강은 '청년과 지역문화예술'란 주제로 총 9명의 지역문화예술계 CEO를 초청, 전문강사들로부터 지역문화의 역사와 정통성, 미래문화자산과의 융합에 대한 고견을 듣는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주용 교수(음악학과)는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문화예술 인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응해준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누구나 함께해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9월 14일 한벽문화관 성영근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대학교 예술관 106호(리싸이틀홀)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대학교 음악학과(063-220-239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